

금남로에서

호남, '감동' 없으면 표도 없다



박치경 수석 논설위원

내년 4월 제 20대 총선 승부처는 단연 호남일 만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변수도 많겠지만 현재 정국 흐름을 놓고 보았을 때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근거는 '호남 맹주' 부재 상황에 있다. 지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호남 표의 향배에 총선 판세가 요동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상대적으로 영남이나 충청 표는 비교적 흔들림이 없다.

아직 호남엔 새정치민주연합이 있지 않으나 반문할지 모르겠다. 막상 선거판이 벌어지면 기존의 관성을 되찾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 하지만, 이제 예전의 호남 텃밭이 아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5%까지 떨어지면서 한 때 새누리당 김부성 대표에게도 지지도가 뒤집힌 것은 분명 소크다. 호남이 새정치연합의 본산인지를 의심케 한다. 해병전

우회·고대동문회와 함께 강한 결속력을 자랑한다는 수도권의 호남향우회도 술렁거리고 있다.

우리나라 유권자, 그 중에서 유독 호남민들은 투표 때마다 '감동'을 좇는다. 하지만 단순한 기분 풀이나 부화뇌동은 아니다. 대의와 명분을 지니고 심금을 울리는 후보가 나타나면 화끈하게 밀어주는 것이다.

턴질 때 던진 '바보' 노무현

지난 2002년 당시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을 돌아보자. 당시 광주 경선에서 신안 출신 한화갑이 부산 출신 노무현에게 패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물론 한화갑을 내세웠던 '호남 고립론'에 밀려 필패하리라 내다보고 노무현을 전략적으로 선택했다는 해석이 많다.

그러나 결코 흉내 내기 어려운 노무현의 정치 역정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숙된 말로 노무현은 호남인의 '간'에 딱 맞았다. 그는 1990년 3당 합당이 이뤄지자 스스로 가시발길을 선택했다. '부도덕한 야합'이라며 1988년 그를 정치에 입문시켰던 '스승' 김영삼 전 대통령과 결별하고서.

이어 1992년 14대 총선(부산 등)과 1995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열세를 무릅쓰고 출마했으나 지역감정의 희생양이 되고 만다. 원외를 땀땀다 1998년 서울 중로 국회의원 보선에서 당선된 후 2000년 총선 때 또다시 부산 북·강서을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나섰다. 결과는 '당연히' 낙선이었다.

지역주의 제물이 될 줄 뻔히 알면서도 몇 번씩이나 몸을 내던진 그는 '바보'가 됐다. 하지만 그의 패배는 훗날 대통령을 임태했다. 호남인들은 고비 때마다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을지라도) 사지로 뛰어들었던 노무현을 '찐하게' 여기고 열광했다. 노무현은 '사즉생(死即生)'을 실천했고, 호남인들은 그를 환생시켜 주었다.

초임기에 들어간 문재인

그렇다면, 지난 18대 대선에서 문재인에게 몰아줬던 호남 표심은 지금 왜 이토록 싸늘해졌는가? 올 2·8 전대 이후 새정치연합의 분란과 호남의 지지 철회는 '물'에 물 탄 것 같은' 그의 리더십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불구덩이에서 몸을 살렸던 '노무현 정치'의 짜릿함에 매료됐던 호남인들이 뜨뜻미지근한 문재인에게 마음을 내주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 당달아 당

내 친노-비노 갈등까지 겹치니 호남민들이 등을 돌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최근 문 대표가 광주에서 내놓은 '문(재인)-안(철수)-박(원순)' 연대 제의는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다. 문(부산)-안(부산)-박(창녕)의 출신 지역이 모두 경상도이다 보니 "영남 패권으로 다 해먹겠다는 것이냐"는 불평이 나올 법도 하다. 혹시나 하고 귀를 세웠던 호남인들의 울화통만 건드렸다. 안철수는 영거추첨이고, 현직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선거법 위반 시비에 몸을 사려 또 하나의 패자가 됐다.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되고 만 것은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한 탓이다. 물론 문 대표의 심정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통 크게 비우지 못하는 건 냉혹한 정치 현실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물러나면 더 큰 논란이 올 것이고 살얼음 정치판에서 자신의 존재마저 사라질 것이라는 걱정이 앞설 수 있다.

어찌 됐든 이제 문 대표가 뒷발 민심을 되돌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 보인다. 천정배·박주선·박준영 등 호남 출신 신당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당내 비주류의 폭발도 임계점에 다다랐다. 문 대표의 급선무는 호남 표심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닫는 것이다. /unipark@kwangju.co.kr

社說

'5월 광주'가 뒤늦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광주·전남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군부독재 시절 핍박받았던 호남민의 애환을 쓰다듬고, 지역의 자립기반 마련에도 애를 썼던 고인 아님이. 당시의 화합·통합 정신의 울림이 크다.

모두를 품으려던 그의 마음 씀씀이는 광주·전남 지역에도 폭넓게 투영돼 있다. 재임 시절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 전 대통령은 특별법 마련과 전두환·노태우 단죄, 국립 5·18 민주묘지 조성, 국가 기념일 지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무고하게 희생당한 광주 시민의 억울함을 풀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철학의 산물이었을 것이다.

경제기반이 취약한 광주의 자립 발판으로 삼기 위해 광주비엔날레를 적극 지원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문화의 프라카 튀어날 서울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을 뿌리치고 자신에게 주어진 유

보금 20억 원을 지원하면서까지 비엔날레가 광주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다. 영남 출신이었지만 호남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가 떠난 후 호남 곳곳에서도 지역민들의 조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5·18 기념재단과 세 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애도 성명회 함께 조문하기로 했다. 특히 기념재단은 김 전 대통령 추모 공로패도 전달할 계획이다. 5·18의 명예를 회복해 주었고 확실당한 광주시민의 한을 달래준 업적을 사후에도 잊지 않겠다는 감사의 표시다.

이제 고인과 얼굴을 마주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호남인들은 가장 암울한 시기에 호남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던 그를 진심으로 추모하고 고마움을 전하려는 성숙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임종 전까지 필담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통합'과 '화합'이라고 썼다고 한다. 그의 유지를 받드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몫이다.

상중인데도... 호남 예산 확보 성과 있기를

새누리당이 엇그제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호남 지역 광역단체장과 회동을 갖고 내년도 호남권 핵심 사업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전남 김영삼 대통령 서거로 인해 당 전체가 상중(喪中)임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예산 간담회를 진행해 호남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보였다. 이는 이례적인 일로 새누리당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 반갑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가 끝날 때까지 상주 역할을 하겠다고 했던 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참석해 힘을 실어줬다는 점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김 대표는 "수도권과 영남권에 비해 호남권의 발전이 더디고 국가적 지원이 덜하다는 인식이 그 지역에 팽배하는 걸 잘 안다"면서 "새누리당은 지역 격차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호남권 발전에도 앞장서겠다"고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윤창현 광주시장은 자동차 100만 대 조성 기지 및 클러스트

조성사업,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에 대한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 낙연 전남지사도 남해안철도 목포~보성 건설, 광양항 24열 컨테이너크레인 설치 지원 등 주요 사업을 소개하며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새누리당 유일 호남 현역 의원이 이장현 최고위원의 예산 소위 합류가 불발된 이후 이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에 요청해 성사된 것이라 한다. 따라서 이 의원에 대한 힘 실어주기 과 내년 총선 대비 '서진 정책'이라는 분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번 협의회에서 보여준 당 지도부의 호남권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1회용 이벤트가 아니었음을 결과로 증명해줘야 한다. 당 지도부가 약속한 대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호남권 발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모처럼 조성된 좋은 분위기가 내년도 호남권 핵심사업 예산 확보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은편칼럼

동홍선생(冬烘先生)



김창균 광주시교육청 장학사

얼마 전 일요일 저녁에 보았던 예능 프로그램 이야기다. 잡자리 북북북을 앞두고 갑자기 검은색 밴이 나타나고, 담당 PD는 출연자 중 한 명이 과거 출연했던 프로그램을 본떠 '산장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이에 출연자들은 여자 연예인과의 미팅을 기대하며 한껏 들뜬다. 미팅 상대는 여자 연예인이 아니라 출연 멤버 중의 한 명이었다. 황당해하는 출연자들을 보며 그들의 '인지 프레임(認知 frame)'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프레임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행동 방식, 결과를 결정한다. 미팅이라면 당연히 이성을 떠올리기 마련이고, 출연자들은 연예인들이 타는 검은색 밴의 등장에 여성 연예인과의 미팅을 생각하고 기습 설레었

을 것이다. 미국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의 말처럼 어떤 이에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그는 코끼리를 떠올리게 된다. '박 2일'의 작가는 이성과의 만남이 아님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상대의 프레임을 역이용할 수 있는 미끼를 던짐으로써 멋진 반전을 이끌어 낸 것이다.

고소설 '춘향전'에 대한 인식도 프레임에 따라 달라진다. 유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문학은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도(道)를 표현해야 한다는 재도론적(載道論的) 생각에 바탕을 두고, 허구성·반체제성·비도덕성·문체의 비속성 등을 근거로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춘향전의 이본(異本)인 '광한루기'는 문장 뒤에 소문의 짧은 평비(評非)가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그 한 부분에서 동홍선생(冬烘先生)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통해 당대 유학자들의 춘향전에 대한 생각을 언급한다.

소설은 동홍선생이 '광한루기'를 본다면 그저 남녀 사이의 일반 부야도 무조건 '음란'이라는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했다. 이본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춘향이 이도령을 방으로 맞은 뒤의 '업음질' 장면이나 춘향이 직접 장죽을 빨아 땀땀볼을 붙인 뒤 이도령에게 전하는 장

면은 지금 보아도 비교육적이나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문학평론가 김치수는 "사회적 현실은 문학 작품의 표층 구조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심층 구조 속에 숨어 있다."고 했다. '춘향전'은 남녀의 사랑을 바탕으로 신분의 문제, 선악의 대립, 신구 세대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 담긴 의미를 당대의 사회 이념으로 비추면 '정절'이 주제가 되지만, 작품 속 이야기에 주목하면 '애정'으로, 변화하는 시대정신으로 바라보면 '저항'으로 읽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간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라캉의 말처럼 기존의 가치나 질서에 기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춘향은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끈질기게 내면화하였고, 불안정한 미래가 가로막을 때도 시대정신으로 저항하였다. 그래서 기득권과의 타협을 포기하고 사회의식의 성장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오늘의 현실에서도 춘향은 새롭게 창조적으로 읽힌다. '춘향전'이 오늘날에도 고전(古典)인 것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 때문이 아니라, 내재한 본질이 주

는 교훈 때문이다.

동홍선생이란 '겨울철에 방 안에 앉아서 불만 쪼고 있는 훈장'이란 뜻이니 '소설은 심성을 바로 뒤고 인문을 교화하는 데에 방해야 된다'고 재도론적 입장을 고집했던 유학자들의 모습이고, 나아가 시대 변화의 당위적 흐름과 요구를 읽지 못하고 과거의 자기중심적 프레임에 고집하는 이의 겨울이기도 하다.

자기중심적 프레임에 갇히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할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유난히 추울 것 같은 겨울의 문 앞에 선 즈음, 소름끼치는 과거를 반추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상 뒤에 숨은 본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동홍선생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미래로 나아가는 단초가 아닐까 싶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일한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가 경쟁력”



정영상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

이러한 일은 실제로 공정성이 결여된 경우도 있었지만 직무 성과가 제대로 반영된 평가시스템이 없거나 직무 성과보다는 연공이 우선되는 평가기준 내지 관행이 주된 원인이다. 포상이나 성과급, 승진 등에 있어 직무 성과와 무관하게 경력 위주의 연공서열이 우선시되는 조직문화가 원인제공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조직문화의 뿌리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과거 인력이 부족했던 산업화·고성장 시대에 형성된 연공형 임금체계가 조직 구성원들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성과나 능력보다는 연공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영향을 주었다. 과연 고실업 저성장 시대인 지금도 연공형 임금체계가 우리의 현재 산업에 맞는 것일까? 기업의 생산성이 낮으면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은 살아 남기가 힘들다. 예외적으로 연공이 높은 사람이 성과가 높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연공이 곧 바로 직무 성과를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임금체계가 사회정의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일은 적당히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면서 이와는 관계없는 방법 등을 통해 높은 성과급을 받거나 각종 포상과 승진에서 우대를 받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여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시간당 임금(2014년)을 보자.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100원의 임금을 받는다면 대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는 64.2원,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는 52.3원,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는 34.6원의 임금을 받는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격차가 매우 크다. 이러한 격차가 반드시 근로자 개인의 성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 공장에서 난이도가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회사소속에 따라, 같은 회사 소속

이면서도 고용형태에 따라 대우가 다른 것을 합리적이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 간 또는 기업 내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 글로벌 경쟁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전부는 아니지만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 기본이라고 보아야 한다.

지금 여러 가지 노동개혁이 논의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정한 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임금체계 마련이다.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논의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람은 대부분 기득권에 안주하고 싶어 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도 경쟁이 적고 직무 성과 향상에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일자리를 얻고 미래 세대들이 공정한 노동시장에서 일하기를 바란다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無等鼓' (Mueonggu) featuring a drum icon and text about a book '공작새' (Kingbird) by Jeong Young-sang, published by Kwangju Ilbo. The text describes the book's focus on the author's experiences and reflections on the current political and social situation in Korea.

Advertisement fo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advertising and subscription. It includes details about the newspaper's history, circulation, and contact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